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Lee, Jong Yun, Ph. D., D.D., D. D.

설교목사

Preaching Pastor

박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다윗의 기특한 마음” (David's Commendable Heart)

■ 사무엘하 7장 1-12절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자체로 우리의 생명과 복과 기쁨이며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는 생명 대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옮기는데 다윗은 뽑고 뽑은 군사 3만 명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성에 입성하게 되자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왕의 체면, 신분, 교양도 내려놓은 채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기특한 마음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축복도 함께 누리 보고자 합니다.

1.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다윗의 기특한 마음입니다(삼하 6:18).

다윗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했습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축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성품입니다(민6:24~26). 오늘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 받은 백성들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되신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만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했던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삼하6:20)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상하고, 그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으며, 많은 제사를 드렸고 온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면서 축복하는 시역을 함에 지나도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집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가족을 축복”하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만나는 사람들 미다 축복했고, 가족들도 늘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기특하게 받아주셨고, 복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2.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다윗의 기특한 마음입니다(삼하 7:2).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적군들을 물리쳤으며,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도 모시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한 시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 즉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전달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듣자마자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헌금을 했는데, 역대상 29절을 읽어보니까, 금만 3천 달란트 은은 7천 달란트 그것뿐만 아니라 놋 8천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 그 외에 수많은 나무들과 보석들을 헌금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다는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십시오 다윗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 하나님의 거절을 겸손히 받아드리는 다윗의 기특한 마음입니다(대상 28:3).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반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반론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순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거절은 당했지만 이렇게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하와 역대상하를 읽다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특하게 여기시는 자가 받는 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맺는 말

저는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늘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철저히 헌신하시며,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도 순순한 마음을 잃지 않으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 (매일)		본당 Ⅱ층	
주 일 예 배	Ⅰ부	가 족 예 배	오전 9시 - 9시 50분	본 당 Ⅱ,Ⅲ,Ⅳ층	
		분 반 공 부	오전 10시 - 10시 30분		
	Ⅱ부	일 반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 12시 30분		
		Ⅲ부	(경배와찬양) 청 년 예 배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 3시 10분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본 당
어 린 이 찬 양 예 배		오후 5시		101호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Ⅱ 부 예 배	오후 7시		Ⅱ,Ⅲ,Ⅳ층	
	어 린 이 수 요 예 배	오후 5시		603호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20분		본 당 Ⅱ층	

교회학교 안내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12개월)	Ⅰ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장 년 부	Ⅰ부 (30대)	오전10시/오후3시30분	401호/702호
		Ⅱ부			오전11시20분	Ⅱ부 (40대)	오전10시
Ⅲ부 (50대)	오전10시		401호				
Ⅳ부 (60대)	오전10시		301호				
유아부(13개월-4세)	Ⅲ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Ⅴ부(70대이상)	오전10시	603호
유치부(5세-7세)				사 랑 부	오전10시30분	102호	
유 년 부	오전 10시		701호	에바다부	Ⅰ부	오전11시20분	본당
초 등 부	오전 10시		101호		Ⅱ부	오후2시	603호
중 등 부	오전 10시		501호	English Bible Class		오후12시30분	101호
고 등 부	오전 10시		601호	새 가 족 부	Ⅰ부	오전10시	602호
대 학 부	오후 3시20분		701호		Ⅱ부	오후12시40분	
청년 1,2부	오후 3시20분		603, 601호		Ⅲ부	오후3시20분	
대학부 토요일집회	오후 4시		501호		학습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40분	602호
청년1,2부 토요일집회	오후 5시		603, 601호		세례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40분	609호
신혼가정부	오후3시20분		802호	소요리문답 Ⅰ·Ⅱ부	오전10시, 12시40분	801호601호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3호	신앙강좌 Ⅰ·Ⅱ부	오후 12시40분	904·701호	

<h3 style="margin: 0;">우리의 비전 (vision)</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p>서울교회 QR코드</p>
---	---	------------------

부목사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성남 황광 박종민 유문건 박광일 박진아 전도사 지혜영
 영어목회담당목사 Steven Martinlich 교육목사 임규현 김인성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영환 김재진 김은수 김철홍
 선교사 강아광·주한다, 이사라, 권요셉·조에스터, 김모세·이한나(동아시아), 전광혜(사아시아),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현주(저자흐스관)
 스프루토바로이, 조남혜, 박진영·김미성(말라레이시아), 이재울·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정성진·홍성임
 (필리핀), 서광호·이성일(인도네시아), 이종길·홍미영(말레이시아), 손신일·민매리(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항정(러시아), 김인서·현해옥(아르헨티나), 홍남기·김인규(우크라이나), 허정범·현미순(일본), 김평강·최사라(동남아시아),
 박봉규, 김대식, 윤왕모, 추수희, 노신애, 이금순, 김병일, 감덕수(군선교), 김종일·백순미(타키노동자), 이선희(범원선교)
 Thaug Neigh Mang·Cin Swan Mung·Ko Tin·Kha Ma·May Kya(미얀마)

English Worship Service

Presider : Rev. Steven Martinolich

11:20 a.m.
Westminster Hall
* Please stand

Prelude	Organist	
Call to worship Psalm 56:10,13	Presider	
Invocation	Presider	
* Hymn 2(6)	Congregation	
*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Responsive Reading No. 27	Congregation	
* Doxology 1(1)	Congregation	
Prayer	Elder Jung Soo Oh	
Hymn 79(40)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1 John 1:5-10	Presider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634(7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acher	
Anthem Come, We that love the Lord	Jerusalem Choir	
Welcome to Newcomers	Congregation	
Member' s Fellowship	Congregation	
Sermon Running to His Light with our Darkness	Rev. Steven Martinolich	
* Hymn 258(190)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Singing of the Lord's Prayer	Congregation	

Running to His Light with our Darkness

1 John 1:5-10

Summary of the sermon

This portion of John reveals to us the mechanics and power of the Gospel. What is revealed is not just a mental picture of God and us, but a reality of God and us. It reveals His nature as well as ours, and so it also reveals the dilemma of the world. He is light, and so, perfect and pure and holy, and we are not.

First, if we do not recognize God for who He is, we will never see ourselves for who we are. At this point recognition is the receiving of the gospel. Not just intellectually but deeply with the heart facing the truth about ourselves and what God has done through Jesus Christ.

Second, if we do not recognize ourselves for who we are, we will never fully understand the necessity of Jesus Christ, the grace of God, and the power of the Cross. When our sin and darkness is revealed we fully understand the two things we need: forgiveness, and cleansing.

Third, truly understanding the grace of God through Jesus Christ, and the power of the Cross, we realize the necessity to run to God with our sins, instead of trying to hide from Him. We have a chance to experience and dig deeper and deeper into the power of the Cross experiencing His grace and transformation in our lives.

The light has come, and is here to stay. The more darkness revealed in our hearts, the greater the understanding of the light of God; grace, power of the cross and inevitable transformation.

Announcement

- Welcome to our worship! After worship, we invite everyone to join us for fellowship in Rm. 104.
- Today our Bible study is cancelled for Choir practice.
- We are asking for volunteers to serve as ushers, choir members, teachers, website, pamphlet making, and other church events. Please pray and allow God to lead you in serving this ministry. Please contact me if you are led to serve in any way.
- Thank you everybody who came out yesterday!!!! Your service did so much!
- Yesterday was the last day to hand out our EM pamphlets, We will continue this again before this year ends.
- Please stay after the 5:00pm service and come to the 8th floor to have dinner. All are welcome.
- Please join our Bible Study Wednesday Nights from 8:30-9:30pm starting Sept. 7th in room 603. We will be digging deeply into the Book of James. It will be very interesting.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찬 양 예 배

-영어예배부 헌신예배-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박광일 목사	박광일 목사
II	오전 11시 20분	박종민 목사	신용식 장로
III	오후 2시	박진아 목사	오광환 장로

오후 5시 · 인도: 임홍수 집사 · 설교: 박노철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03:17-18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2(6)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3부(삼계편) 2부(45사편103편)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445(502)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삼하 9:1-8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헌 금, 구제헌금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Promise Keepers)	박노철 목사		
* 찬 송 Hymn 370(455)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69:30-31	인 도 자
찬 송 292(415)	다 함 께
기 도	윤갑숙 권사
찬 송 488(539)	다 함 께
성 경 롬 12:9-13	장경원 집사
특별송서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찬 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자 이
특별찬양	말 은 이
* 찬 송 484(533)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 인도 · 설교: 박노철 목사
II부 오후 7시

기 도	I부: 전숙환 권사, II부: 이영숙 권사
성 경	마 5:1-9
찬 양	찬 양 대
설 교	"회개에 하는 자의 복" 설 교 자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한현숙 · 흥해관 · 김양연
설 교: 박노철, 박종민 목사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20분 본당 2층
설 교: 문문건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예 배	찬양대	연 주 곡 명	작(편)곡자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I부	가브리엘	내 영아 찬양하라	John Purifoy	유태왕	차주연	박승기	윤주일
II부	할렐루야	주 찬양 합니다	John Sciveynor	고성진	김현정11	김양연	박광서
III부	임마누엘	예수 이름 높이세	최태신	류충기	강민정1	양경실	윤중현1
찬양예배	베들레헴	나의 모든 기도	Douglas Nolan	오정녀	오신욱	박수강	
영어예배	예루살렘	Come, We that love the Lord	Robert Lowry	심삼희	최수황	이승민1	
수요 I부	호 산 나	주님의 사랑으로	이선우	서희숙	김윤지2	홍혜란	
수요 II부	시 은	아름다운 만물들	M. Larkin	박정선	김진형	서유진	
(헌금송)							
I부	고 등 부	내 구주를 더욱 사랑	Joseph M. Martin	김한자1		김가희	
II부	그레이스랜드편	내 목자는 사랑의 왕	C. Dobrinski	송재월			
III부	아멘관현악단	Lift your eyes and look to heaven Arr. by D. Smith		임병창			

* 표는 화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교회 소식

❖ 모 일

- 1. 2011 사명자대회 부장 모임 / 28일(주일) 오후1시30분 202호
- 2. 제2권사회 직장인 기도회 / 28일(주일) 3부예배 후 903호
- 3. 수험생 학부모 기도 모임 / 31일(수) 오전10시 903호(H.P. 010-8353-0197)
- 4. 제1권사회 월례회 및 기도회 / 31일(수) 오후1시20분 101호(웨스트민스터 홀)
- 5. 제2권사회 월례회 및 기도회 / 31일(수) 오후1시20분 501호
- 6. 13교구 연합다락방 모임 / 9월2일(금) 오전11시 501호
- 7. 이삭 선교회 월례회 / 3일(토) 오후2시 603호
- 8. 남산교회·여전도회 심방부장,차장 노방전도 / 3일(토) 오후2시50분 104호
- 9. 제1스데반회 월례회 및 특강 / 3일(토) 오후3시 602호
- 10. 전 도 /28일(주) 주일전도 : 전교인(1,2,3부 예배 후)
 - 주일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날입니다. 나가실 때 각 층 로비에 비치된 순례자와 전도지를 가지고 이웃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30일(화) 오전 10시 70인전도대(대처삼성, 도곡역세, 롯데캐슬, 진달래, 대치 i -park, 삼성동힐스테이트, 개포주공)
 - 오전 10시 70인전도대 화요기도팀(609호)
 - 31일(수)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수요기도팀(609호), 문서전도팀(603호)
 - 오후 1시 70인전도대 특례생 학부모 기도팀(903호)
 - 오후 1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노방팀, 루디아 전도회(104호)
 - 오후 8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일간팀, 제1, 제2스데반회(한티공원)
 - 9월1일(목) 오전 10시 70인전도대(중영전도: 은마, 미도 청실, 대치현대, 역삼라키, 국제, 개포주공6,7단지)
 - 오전 10시 70인전도대 목요기도팀
 - 2일(금) 오후 2시30분 70인전도대
 - 3일(토) 오후 3시 교역자회(한티공원)
 - 오후 3~5시 70인전도대 토요노방팀, 안드레 선교회(한티공원)
- 11. 금요기도회 / 9월2일(금) 오후 8시20분 - 본당2층, 대상 : 전교인

❖ 알 림

- 1. 새가족 등록 /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의 대화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호-칼빈홀)
- 2. Baby-sitting 운영 / 수요예배와 주일오후 찬양예배에 참석하는 유아를 위해 403호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홀)
- 3. 영어동시통역 (통역: 김시라 권사) / 2부 예배 시 외국인을 위한 영어동시통역이 있습니다. 동시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헌관에서 안내위원들에게 Earphone을 받아 사용하신 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Simultaneous interpretation earphones are available to help your service, please ask an usher at the door to assist you』 (Interpreter : Sarah Kim)
- 4. 2011 사랑의 바자 / 이웃사랑, 아가페타운 건립, 농어촌 미지원 교회 돕기 2011 사랑의 바자가 9월29일(목), 30일(금) 양일간 서울교회에서 열립니다. 2011 사랑의 바자 포어는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바자"이며, 수익금은 교회 목표중 하나인 빈약한 자 구제를 위해 쓰여집니다. 바자 준비기간 동안 성도님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로 바자가 풍성하게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5. 주일예배 시간 영아부 운영 / 주일예배 시간에 베들레헴 홀(403호)에서 0-12개월 이하 영아를 맡춤으로 양육하는 영아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3개월-4세까지 어린이는 유아부, 5세-7세 어린이는 유치부에서 각각 돌봅니다. 아기를 안고 예배실(본당)에 참여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김옥례	14-20	사라	김수진/이분형/김실	이은미	1-11	뱌뱌	본인	임정우	14교구	중등부	이창희/박혜선
권민자	13-7	리브가	천금엽	어울정	16-8	루디아	박이선/정수진	이법진	14교구	중등부	이창희/박혜선
박순영	2-14	엘리아	최규초	변신석	16-8	도르가	박이선/정수진	김희선	교육1국	유년부	박이선/정수진
강복자	2-14	에스더	최규초	김명찬	12-16	청년1부	최규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미자	2-14	뱌뱌	김경복/박이선	박희정	2-14	청년1부	최규초				

☞앞면에서 계속

6. 기도실 이용안내 / 기도와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교회는 교회당 3층에 기도실을 설치하여 성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장소: 302-306호 · 이용시간: 오전 9시 - 오후 10시)
※ 단, 기도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7.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병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2-308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8. 의료 상담 / 문경터(소아과)
주일 오후 1시 902호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 011-9759-2299

제구실

사람이 제자리에서 제구실을 할 수 있다면 그는 훌륭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제 자리를 잃고 제구실을 하지 못한 분수를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학생과 스승의 자리, 근로자와 경영자의 자리, 백성과 공직자의 자리가 엄연히 구별되어 있다. 상하의 계급이 있어 구별된 것이 아니고 직분의 성격상 자리를 정한 것이다. 그 자리값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이 제구실을 못하게 되면 그 결과는 제자리를 찾지 못한 이와 같이 도리어 남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만다. 제자리에서 제구실을 하는 이를 사회는 존경하고 아끼는 것이다.

풍부한 지식과 지략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같아서는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진실하고 거짓 없는 정직한 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구실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

청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쓰시다.
유지	교회에서 음식을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일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성수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